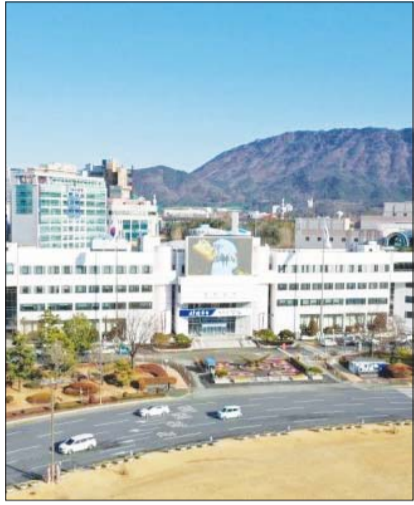


# 창원, 아동·장애인·취약계층 아우르는 시민체감 돌봄 본격화

통합돌봄 가동 2500명 맞춤 지원 의료기관 58곳 협약 돌봄망 구축 그냥드림 시행 먹거리 문턱 완화 아동수당 확대 소급 지급 병행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가 아동부터 장애인·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시민 체감형 돌봄정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체계 구축, 긴급 먹거리 지원, 아동수당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4개 사업이 핵심이다.

지역 사회 통합돌봄은 지난달 27일 전국 시행에 맞춰 본격 가동됐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일상생활 돌봄·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약 250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58개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보건소 등 8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읍·면·동 단위로 활동할 '이웃돌봄활동가' 660명도 모집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의창구 도계동 창원시희망푸드마켓을 방문하면 심사 없이 현장에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노숙인·신용 불량자 등 기존 복지 제도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계층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이용 시에는 상담을 통해 공공 부조와 지역 복지지원 연계 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조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4월부터는 2017~2018년 생략 9300명에게 1~3월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해 수급 공백을 해소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5월

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 바우처 이용 장애인이 급여액의 20%를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구입 또는 다른 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남에선 창원시가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를 중심으로 30명이 참여한다. 마산장애인복지관이 수행 기관으로 지정됐다.

최영숙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민의 삶과 일상에 더 가까운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빈틈없는 지역 돌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부산시-경남도

####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 행정 통합을 목표로 국회에 특별법을 공식 발의했다. 부산·경남 국회의원 30명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성권 의원을 대표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부산·경남 양 시도지사를 비롯해 조경태·박수영, 정점식·강민국·최형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먼저 필요한 자치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충남도

#### '마을행정사' 제도 본격 운영

충남도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마을행정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와 제도 소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는 '마을행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마을행정사는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작성,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등 전문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남문 외투자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창원시 진해구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BJFEZ는 최근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잔여 부지 활용 방안과 앞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제조 기업의 운영 애로사항과 기업 지원 정책, 투자 환경 개선 방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은 부산항 신항과 인접해 항만·공항·철도를 아우르는 물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제조 거점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영주시

#### 내달 소수서원 야간개장 운영

영주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소수서원 야간개장을 진행한다. 운영일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다. 해당 기간 방문객은 별도 비용 없이 야간 관람이 가능하다. 야간개장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은 5월 2일 오후 6시 30분 경림정 앞에서 열린다. 개막 행사와 함께 본격적인 야간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운영은 전통문화유산의 새로운 감상 방식을 제시하여,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서원의 건축과 자연 경관을 부각시켰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한중 산업협력 포럼 및 경북 투자설명회. /경북도

## 경북, 中 상하이서 투자유치 보폭 넓혀

### 한중 산업협력 포럼 현지 개최 유망기업에 경북 투자환경 소개

경북도가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 투자 포럼을 열고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섰다.

도는 지난 13일부터 현지에서 '한중 산업협력 포럼 및 경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했다.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양국 정부 인사와 대

학·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경영진, 투자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투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상하이 권역 유망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포럼에서는 중국 금융·자본시장·플랫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특히 경북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울진군, 동해선 KTX 100일 맞아 관광홍보

### 부산역서 관광자원·특산품 알리

울진군이 동해선 KTX 개통 100일을 계기로 부산역에서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에 나섰다. 코레일 강원본부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울진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직접 소개하며 철도 기반 관광 활성화를 겨냥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개통한 동해선 KTX의 운행 100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울진군은 철도를 활용한 관광 수요 확대를 목표로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역에 홍보 공간을 설치하고 방문객 접점을 넓혔다.

현장에서는 주요 관광지와 체험 프로

그램이 안내됐다. 지역 특산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며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접근성이 개선된 울진의 관광 매력을 직접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형 이벤트도 호응을 얻었다. 금강송주와 금강송꿀 그리고 매화쌀엿 등을 제공하는 물렛 행사가 진행되며 철도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했다.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울진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 행사를 통해 '울진이 기차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 관광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영양군, 응급의료 해법 공론화 시급

닥터헬기·야간진료로 버티는 현실 군비 지원에도 응급실 확충은 난망

영양군의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영양군은 닥터헬기 운영과 영양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간신히 야간 진료의 맥을 잇고 있지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응급실'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생명권 보장이라는 대원칙과 경제적 효율성(B/C) 사이에서 영양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과의사와 군비를 지원하는 영양병원이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를 영양병원에 지원해 입원실과 야간 진료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확충과

고도화된 장비 도입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용 대비 편익(B/C)'이다. 낮은 수요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중앙부처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지역 내에서는 군립의료원 건립, 민간 병원 지원 확대, 예방 시스템 및 접근성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안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군민들의 합의와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완도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박차

### 3개 생활권에 총 300억 확보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 뉴딜 300'의 후속 사업으로 '23년 완도읍 망남 생활권, '25년 신지면 동고 생활권에 이어 '25년 말 금일읍 관문권이 공모에 선정되어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개소당 100억 원이 투입되며 항만 정비와 생활 시설 확충, 주민 복지 공간 등을 조성하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 준공까지 4개년간 추진된다.

완도읍 망남 생활권('23~'26)은 올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어항 시설 개선과 어촌 스테이션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골자로 올해 초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월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전경. /완도군

까지 실시계획 마무리,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신지면 동고 생활권('25~'28)은 폐교를 활용한 돌봄 센터 리모델링 및 공동 생활 휴 조성, 어항 시설 정비,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기본 계획 수립은 7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